문화광장

작품을 둘러싼 논쟁들

김 연 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1989년 어느 날 미니멀아트 작가로 불리는 도널드 저드와 칼 안드레는 무척 화가 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에이스(Ace) 갤러리에서 작가의 허락도 없이 자신들의 작품을 복제해 전시했기 때문이다. 다음해 작가들은 미술전문잡지인 '아트 인 아메리카'에 서한을 보내어 에이스 갤러리의 작품은 자신들의 작품이 아니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갤러리와 작품을 소장하고 있던 판자 컬렉션은 다시 제작한 작품을 위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두 작품 모두 너무 크고 무거워 포장과 운송이 어려운 상황에서 판자 컬렉션은 작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던 터라 작품을 다시 제작해서 전시하라고 허락했고, 갤러리도 소장가가 허락했기에 다시 제작해도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 더욱이 복제한 작품은 전시한 뒤 폐기할 예정이었다.

다른 미니멀아트 작품과 마찬가지로 판자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던 안드레의 '추락(Fall)'과 작품 제목이 없는 저드의 작품은 작가가 직접 손으로 제작하지 않고 공장에서 작가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졌다. 따라서 같은 세부 지침에 따라 만들어졌다면 에이스 갤러리가 다시 제작한 작품을 위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허락을 구했다면 안드레와 저드도 다시 제작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작가가 여기서 문제 삼았던 점은 다시 제작할 때 작가의 허락을 받았느냐 아니냐이다. 즉 다시 제작된 작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다시 제작할 때 작가의 개입 여부가 문제였다. 이처럼 미니멀아트는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 제작된다는 획기적인 개념을 현실화한 작품이지만, 이러한 개념 때문에 작가가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두 작가에게는 자신이 부정되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아무리 미니멀아트 작업이라도 작가의 허락 없이 복제되는 일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개념의 작품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장, 관리, 전시 등의 규범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작가, 소장가, 전시기획자 사이에서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개념과 형식의 작품이 지금도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과 몇 년 전에는 단 하나의 디지털 이미지에 원본이라는 표시를 심어두는 NFT 기술로 원본과 복사본이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디지털 이미지에 원본을 만들어내었다. 최근에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사용해 제작되는 작품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사이에서 새로운 논쟁이 불붙고 있다.

올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AI를 활용한 예술 창작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창작 실험실'이라는 지원사업 유형을 신설했다. 이미 제주도 안에서도 몇몇 작가가 AI를 이용한 작품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이번 지원사업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지원과 더불어 제주도는 얼마나 이러한 예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앞으로 AI와 연관된 작품에 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사설

내장객 감소 도내 골프장 비용 개선 시급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호황을 누렸던 제주 골프 수요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도내 골프장 내장객이 4년 연속 감소세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5년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관광객(도외·외국인) 122만1438명, 도민 97만7065명 등 219만8503명이다. 관광객은 2024년 130만6557명보다 6.5% 줄었고, 도민은 전년 104만1153명보다 6.2%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2024년 234만7710명보다 6.4% 줄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내장객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나마 여름철 휴가차 제주를 방문한 내장객들이 늘면서 잠시 반등하기도 했지만 겨울철 내장객이 급감하면서 전반적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200만명 선이 조만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됐던 2021년 298만874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4년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인상됐던 골프장 이용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장객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내장객 감소 고착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골프장 비용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골프장 이용 요금은 제주와 다른 지역 간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항공료와 숙박료 등 추가로 비용이 소요돼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 비용구조 개선 없이는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매력적인 체류형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택시 불편 해소, 종사자 처우 개선부터

늦은 저녁, 집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다. 택시엔 향긋한 꽃 향기가 가득했다. 차내에 부착된 장미에서 나오는 향기였다. 60대 중후반의 운전사는 의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있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 가득한 여정이었다.

택시에 대한 말들이 많다.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201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택시 불편 민원은 직전 300건대에서 2017년 804건, 2018년 872건, 2019년 823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엔 주춤했지만, 2021년 763건, 2022년 873건, 2024년 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776건을 기록했다.

정확한 조사·분석은 없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버스준공영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적잖은 이들이 직장을 옮기면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한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택배·배달 등으로의 이직도 한몫을 한 것으로 여긴다.

행정처분은 오락가락이다. 대부분 과태료, 경고·주의 등 처분이 내려지지만 어떤 해에는 불문 처리되기도 한다. 공교롭게도 불문 처리가 많은 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와 겹친다. 고무줄 처벌로는 택시 불편을 줄일 수 없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처우 개선을 약속하지만 나아진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열악한 처우에서 최상의 서비스가 나올 리는 만무하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열린마당

보이스피싱, 의심이 가장 강력한 방패

김 신 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수법을 바꾸며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설마 내가 당할 줄 몰랐다"고 말한다. 보이스피싱은 특정 연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은 물론 스마트폰과 금융 앱 사용에 익숙한 청년층까지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악성 링크를 통해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카드 배송', '대출 승인', '교통범칙금 미납' 등 일상적인 문구로 접근해 무심코 링크를 누르게 만든다. 한 번의 클릭이 평생 모은 자산을 잃게 만들 수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의 첫걸음은 '의심'이다. 전화나 문자로 금전을 요구받는 순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와 링크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112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566-1188)에 신고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순간의 방심을 노리는 범죄다. 전화를 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드린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오 도정 경제 전략 2주 만에 재차 강조

도민 체감도 제고에 주력

○…제주도가 19일 민생 경제 온기 회복, 경제 체질 개선을 두 축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제시하며 도민 체감도 제고에 주력하는 모습.

이날 탐나는전 발행 규모 5000억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 취득세 최대 50% 감면, 지역 제한 경쟁 입찰 허용 금액 150억원 상향 등을 제시했는데 2주 전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 때 오영훈 지사가 강조한 내용과 적잖게 중복.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반오영훈' 연대 세력으로 분류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 활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오 도정의 민생 회복 성과와 비전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해석도 제기. 진선희기자

경찰, 화물차 법규위반 단속

○…제주경찰청이 최근 화물차량 사고 증가로 도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량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이에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제주항, 한림항 등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적재중량·용량 초과, 불법 구조 변경,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

경찰은 "지정차로 위반, 통행제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한다"며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신규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화물차와 보행자 간 시야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언급. 백금탁기자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강세환(1965. 05. 26. 생)
• 최후주소 :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77

상기자는 2025년 9월 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1월 15일 제주지방법원 2025느단582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거로남4길 19-10 가동 402호 (화북이동, 부웅크리스탈6차아파트)
   송달장소: 제주시 구남로8길 17, 2층 (이도이동)
   송달영수인 : 강원식

2026. 1. 20.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박미선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춘택(1952. 05. 17.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길 7, (김녕리)

피상속인은 2025년 10월 4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6년 1월 12일 제주지방법원 2025느단62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 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길 7, (김녕리)
   • 송달장소 제주시 노연로 49, 2001호 (노형동)

2026년 1월 20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신 경 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